

① 안/않

안: 짧은 부정에 사용.
동사 바로 앞에서 <안 해요>

않: 긴 부정에 사용.
<지>를 동반 <하지 않아요>
'안'인지 '않'인지 모르겠을 때, '하지 않아요'라고 한번 써보면 '하지 않아요'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음. ('안 하다'를 '않 하다'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'하지 않다'를 '하지 않다'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없겠기에)

② 든/던

든: '선택'의 개념. <하든(지) 말든(지)>

던: 과거의 일. <하던 일>
<얼마나 춤던지>

③ 왜/웬

왜: '왜인지'의 준말 '왠지'의 꼴로만 쓰임.
<왠지 모르게>

웬: 어쩐, 무슨, 어지간한. <웬 일> <웬만한>
(관형사 '웬' + 명사 또는 의존 명사)

④ 낫다/낳다

낫다: 1) 동사일 때 - 병이나 감기가 **낫다**: 건강해지다.
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별이 모호할 시,
'어간 + <는다>'가 성립되면 동사, 안 되면 형용사.
예) 무리하지 않아야 빨리 **낫는다**.
<나아요> <나았어요>처럼 'ㅅ' 탈락 현상이
이루어지나 '낳'이 되는 경우는 없음.

2) 형용사일 때 - A 보다 B 가 **낫다**: A 보다 B 가 좋다.
'어간 + <는다>' A ~~보다~~ B ~~가~~ **낫는다**. 성립 안 됨.

낳다: 아이를 **낳다** (출산하다), 문제를 **낳다** (문제를 야기하다)
예) 그 부부는 쌍둥이를 **낳았다**.
예) 잘못된 정책은 많은 문제점들을 **낳았다**.

⑤ 들이다/드리다

들이다: 사람 또는 무엇을 안으로 들어 수용함.
예)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인다.
예)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.

드리다: '주다'의 높임말.
예) 도와드릴까요?
예)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.

⑥ 되/돼 <되 + 어>가 되면 **돼**, <되 + 어>가 안 되면 **되**.

되 + 어요 = **돼요** ('되어요'의 줄임)

되 + ㅂ니다 = **됩니다** ('~~되읍니다~~' 성립 안 됨)

되었 + 어요 = **됐어요** ('되었어요'의 줄임)

되었 + 습니다 = **됐습니다** ('되었습니다'의 줄임)

⑦ 보다/보다/봬다

보다 예) 내일 **봐요!** (주어: 우리)

보다: 1) 주어가 '**우리**'일 때

예) 내일 **배요!** ('내일 봐요!'보다 높임말)

1 인칭이 포함되는 청유형임에도 '우리'를 높임. 맞춤법은 <봬+어요> 형태이기에 <봬요>가 아닌 <배요>.

2) 주어가 '**나**'일 때

예) 내일 **봬게요**. (내가 상대를 높여 찾아 됨)

봬다: 예) 내일 **봬겠습니다**. (주어: 나.

'내일 봬게요'보다 정중한 표현)

⑧ 반듯이/반드시

반듯이 : 비뚤지 않고 바르게. (일자로 똑바로)

예) 천정을 보고 **반듯이** (또는 **반듯하게**) 누웠다.

반드시 : 꼭. (무슨 일이 있어도, 기필코)

예) **반드시** 하고야 말겠다.

⑨ 는데/는 데

는데 : 문장과 문장을 잇는 연결 어미.

<는데> 뒤에 조사 <에>가 올 수 없음.

예) K 씨는 서울에 **사는데**, 제주도로 이사할
생각이다.

는 데 : 는 + 데. (데는 의존 명사로서, 일·경우·것 등의 뜻)

<는 데> 뒤에 <에>가 와도 됨.

예) 의식주는 사람이 **사는 데(에)** 있어 기본이
되는 것이다.

예) 머리 **아픈 데(에)** 먹는 약 좀 주세요!

예) 그가 그 일에 목을 **매는 데(에)**는 그만한
이유가 있다.

⑩ 가르치다/가리키다

예) K 씨는 한국어를 가르칩니다.

예) 시계가 열두 시를 가리킵니다.

⑪ 손가락의 '숯'은 받침이 'ㄷ'이고, 젓가락의 '젓'은 'ㅅ'인 이유.

손가락: 가령 '한숯 뜨다' 또는 '첫숯에 배부르랴'라고 할 때, 이때 '숯'은 손가락이고, 이 '숯'이 '숯'으로 됨.

젓가락: 손가락과 젓가락을 일컫는 '수저'에서, 이때 젓가락에 해당하는 '저'에 '가락'이 붙으며 **사이 시옷**이 들어간 것.

⑫ 하십시오/하십시요

'하시다'의 명령형 종결 어미는 '하십시오'가 아닌 '하십시오'. 그러므로 '하시다'의 명령형은

<하십시오!> 대화체의 명령형은 <하세요!>

어서 오십시오! 여서 오십시요!

안녕히 가십시오! 안녕히 가십시요!

등등.

⑬ 이에요/예요

이에요: 자음 뒤에서 <마틴이**예요**>

예요: 모음 뒤에서 <토마스**예요**>

⑭ 이었어요/였어요

이었어요: 자음 뒤에서 <마틴이**었어요**>

였어요: 모음 뒤에서 <토마스**였어요**>

⑮ 옳은/올바른

옳은: 맞는.

예) **옳은** 표현.

올바른: 바람직한.

예) **올바른** 생각. (비뚤어지지 않은 생각)

⑯ 그런대/그런데

그런대: <그런다고 해>의 줄인 말.

그런데: 접속사.

⑰ 유래/유례

유래 (由來): 근원, 시초, 뿌리.

예) 이 풍습은 어디서 **유래**됐을까?

유례 (類例): 예를 들만한 사례.

예) 일찌기 그런 **유례**가 없다.

⑱ 꼽다/꽃다

예) 만날 날을 손**꼽아** 기다린다.

예) 친구의 등에 칼을 **꽃았다**.(친구를 배신함)

예) 약자들에게 빨대를 **꽃았다**.

(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갑질하여 이익을 챙김)

⑲ 담그다/담다

김치를 **담그다**: 김치를 만들다

예) 김치를 **담가요**.

김치를 **담다**: 김치를 그릇에 옮기다.

예) 김치를 담가서 통에 **담아요**.

㉔ 어이/어의

어이없다: 어처구니없다, 기가 차서 어안이 병병하다.

예) 하도 **어이가 없어** 말문이 막혔다.

어의 (語義): 말의 개념.

예) **어의**가 변형된 낱말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.

㉕ 섞다/씩다/썩다

섞다: 혼합하다.

예) 소주와 맥주를 **섞으면** 소맥이 된다.

씩다: 상하다.

예) 단 걸 많이 먹어서 이빨이 **씩었다**.

‘썩다’는 없는 단어.

㉖ 짓다/짓다

짓다: 만들다. (집을 짓다, 밥을 짓다, 이름을 짓다 등등)

예) 이 건물을 **짓는**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.

짓다: 개가 짓다.

예) 멀리서 개 **짓는** 소리가 들린다.

㉓ 어폐/어패

어폐 (語弊): 언어의 폐단, 불합리성.

예) 말에 **어폐**가 있다.

어패 (魚貝): 생선·조개. ‘어패류 (魚貝類)’ 꼴로 쓰임.

예) 신선한 **어패류** 고르는 법.

㉔ 처/쳐

처: ‘마구’라는 뜻의 접두사.

(**처**먹다 · **처**마시다 · **처**놓다 · **처**바르다 · **처**박히다 등)

예) 식당 주인인 욱쟁이 할머니는 손님에게
주는 대로 **처먹으**라고 했다.

예) 덕지덕지 **처발라** 놓은 시멘트.

쳐: 동사 <치다>의 어간 ‘치’ + 어.

(**쳐**들어가다 · **쳐**죽이다 · **쳐**부수다 · **쳐**내다 · **쳐**들다 등)

예) 장덕수: 이새끼들 금고 있는 데를 **쳐들**어가는 거야.

예) 니가 고개를 **쳐들**고 노려보면 어쩔 건데?

㉕ 어떡해/어떻게

<어떡해>는 <어떻게 해>의 줄임.

‘어떻게’는 존재하지 않음.

㉖ 치르다/치루다

예) 물건을 사고 값을 치렀다.

예) 다행히 날씨가 좋아 야외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다.

㉗ 대로/데로

대로: <대로>가 한 묶음.

예)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걸었다.

예) 너 하고 싶은 대로 해!

데로: <데> + <로>의 결합.

<데>는 곳·장소, <로>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.

<데로>를 <데에>로 대체해도 문장이 됨.

예) 친구가 나를 재미있는 데로 데리고 갔다.

예)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좀 할까?

㉘ 온/오는, 오던

온: 자신의 출신 국가 소개 시 쓰는 유일한 시제.

예) 저는 독일에서 온 파울입니다.

(~~‘저는 독일에서 오는 파울입니다’~~ 또는

~~‘저는 독일에서 오던 파울입니다’~~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음)

‘오는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: 가령 파울이라는 독일인이 있다고

할 때, ‘독일 사람으로 태어난 파울’이란 표현은 맞지만,

‘독일 사람으로 태어나는 파울’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음.

(이미 태어났으므로). ‘독일에서 (한국으로) 온’도 같은 맥락.

‘오던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: ‘예전에 한번씩 오고는 하던’

또는 ‘계속해서 온’ 일련의 행위를 이르는 말이 됨.

(‘태어나고 하던’으로 대체해보면 ‘오던’이 왜 이상한지 알 수 있음)

㉙ 어렵다/어렵겠다 (또는 어려울 것 같다)

어렵다: 쉽지 않다.

예) 부탁하신 일 **어렵지만** 해보겠습니다.

(문장 끝의 동사가 ‘해보겠다’로 확장. <해볼게요>로 대체해도 됨)

어렵겠다: ‘안 됨’을 **상대에게** 완곡하게 표현.

예) 부탁하신 일 **어렵겠습니다**.

(‘겠’의 용법 중 하나로 에둘러 포함. 상대에게 화답 시, 동사가

‘어렵겠다’ 또는 ‘어려울 것 같다’로 끝나면 어려워 보이는 일을

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)

㉔ 벌이다/벌리다

벌이다: 시작하다, 펼치다.

예) 일을 **벌였으면** 수습을 해야지.

벌리다: 간격을 넓히다.

예) 지하철의 짝**벌**남.

(지하철에서 다리를 짝 **벌리고** 앉은 남자)

㉕ 로서/로써

로서: ‘○○의 신분·지위·자격에 상응하게’라는 뜻이 통할 때.
(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)

예) 부모된 도리**로서** 책임을 다해야 한다.

예) 분단국가**로서**의 대한민국.

로써: ‘그것을 통해서’, ‘그것을 이용해서’라는 뜻이 통할 때.
그것이 수단이나 도구가 됨.

예) 그렇게 **함으로써**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다.

㉖ 깎다/깎다

연필을 깎다, 값을 깎다, 머리를 깎다, 잔디를 깎다 등등.

③ 채/체

채: ‘ㄴ 채로 무엇을 하다’라는 것으로, 있는 상태 그대로 동작·행위가 전개될 때 사용.

예) 안경을 **쓴 채로** 잠이 들었다.

생략이 될 수도 있지만 올 수 있는 조사는 <로>.

체: 짐짓 그런 양 꾸미는 거짓 행동을 할 때 사용.

예) 어떤 동물들은 천적을 만나면 **죽은 체**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.

<죽은 체>를 <죽은 척>으로 대신해도 됨.

생략이 될 수도 있지만 올 수 있는 조사는 <을·를>, <죽은 체를 해서> 또는 <죽은 척을 해서>.

③4 짜

‘그대로 전부 다’라는 의미의 접미사. 앞 낱말과 붙여 씀.

예) 찌개를 끓여서 냄비**짜**로 먹었다.
(그릇에 덜지 않고 그대로 먹음)

③5 매다/메다

넥타이를 **매다** (**매듭**과 관련)

가방을 **메다** (**멜빵**과 관련)

㉞ 너무

예 1) A 는 한국 살이하는 외국인, B 는 한국인.
둘이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.

Person A: 한국말을 **너무** 잘 하시네요.
(한국말을 몹시 잘한다는 의미로 칭찬함)

Person B: 아닙니다. **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.**
(~~아닙니다. 너무 잘 하지 않습니다~~)

예 2) 학창 시절 친구였던 두 사람이 사회에 나온 뒤,
몇 년만에 만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.

Person A: 너, **너무** 많이 변했다.
(사람이 지나치게 달라졌음)

Person B: 아냐, 나 **그렇게 변하지 않았어.**
(~~아냐, 나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어~~)

㉟ 드러내다/들어내다

한계를 **드러내다**, 속마음을 **드러내다**, 모습을 **드러내다**
본색을 **드러내다** 등등.

(물건을 바깥으로) **들어내다**

예) 집안 정리를 하면서 안 쓰는 물건을 버리려고
바깥으로 **들어냈다.**

㉘ 빼다/뺏다 (빼앗다의 줄임)

‘빼다’의 과거형은 ‘뺏다’

예) 뚱뚱해서 살을 **뺏다**.

‘뺏다’의 과거형은 ‘뺏었다’

예) 일진들은 남의 돈을 **뺏었다**.

(줄이지 않으면 ‘빼앗았다’)

㉙ 같은 철자이나 발음이 **경음화** 되는 경우

용:견만 간단히 [용:견]

용견 (사람 이름) [용견]

K 콘텐츠의 인기 비결 [인끼]

인기 (사람 이름) [인기]

태권도 [태권도]

태권 (사람 이름) [태권]

인권 변호사 [인권 변호사]

인권 (사람 이름) [인권]

영자 신문 [영짜 신문]

영자 (사람 이름) [영자]

지적 수준 [지쩍 수준]

지적하다 [지저카다] 등등.

④⑩ 현실음을 고려한 <의> 발음

첫 글자일 때: 예) 의사 [의사]

예) 의문 [의문]

첫 글자가 아닐 때: 예) 정:의 [정:이]

예) 주:의 [주:이]

예) 문:의 [무:니]

소유격일 때: 예) 사랑의 불시착 [사랑에 불시착]

예) 나의 아저씨 [나에 아저씨]

④⑪ 종성 <ㅅ>의 발음

註1 연음이 되는 경우: 예) 옷이 [오시]

예) 맛있다 [마시따]

註2 대표음이 되는 경우: 예) 윗옷 [위돋] (윗옷 → 위돋)

예) 맛없다 [마덱따]

ㄴ 첨가가 되는 경우: 예) 깻잎 [깻닙] (깻잎 → 깻닙)

예) 나뭇잎 [나문닙]

(‘잎’은 예전에 ‘뉘’이라고 했음)

註1 연음 (連音). Liaison.

註2 대표음 (代表音). 받침 <ㅅ, ㅆ, ㅈ, ㅊ, ㅌ>이 <ㄷ>으로 소리남.

예) 뭇[믄], 잎[임], 깻[찰], 꽃[꼇], 끝[곧].